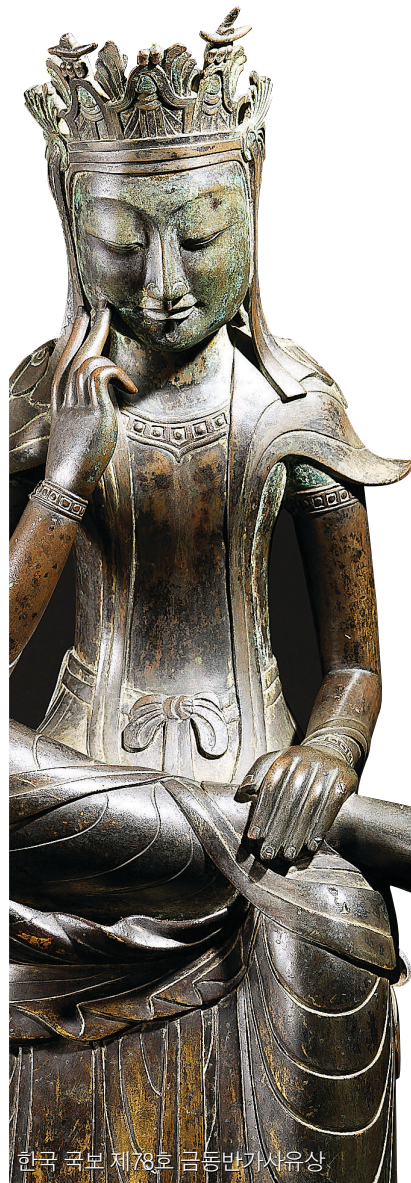


韓日 반가사유상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博, 한국보 78호 · 日국보 반가사유상 공동 전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양국 반가사유상 전시는 최초 5월 24일부터 기획전시실서

반가사유상은 한국 다리를 다른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보살상이다. 출가 전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상태의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이 보살상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 전래됐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 반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기획전시실에서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 주구사(中

宮寺) 소장 목조반가사유상이 소개된다. 한일 양국 반가사유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목조반가사유상은 '사유'라는 인류 보편적 주제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시각화했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국시대 6세기 후반에 제작된 한국의 금동반가사유상은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띤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으로 사유에 든 보살의 무한한 평정심과 승고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 몸을 덮은 천의(天衣) 자락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한 보살의 위엄을 드러낸다.

금동반가사유상이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실제로는 공존하기 어려운 '반가'와 '사유'라는 복잡한 두 가지 자세를 자연스럽게 구현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장신구나 유려한 천의자락을 일정한 무게로 주조한 금동불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최고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첨단 주조 기술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일본의 나라 현(奈良縣)에 위치한 주구사에 소장된 목조반가사유상은 7세기 후반 아스카 시대에 제작된 불상이다. 두 개의 상투를 든 머리 모양에 윤곽선이 없이 두툼한 눈과 입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어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주구사 상은 삼국의 영향과 일본 고대 불교 조각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으로,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일 반가사유상의 비교전시는 불상 전래 과정에서 역동적인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속과 목재로 재질이 다르지만 반가사유상이라는 독특한 자세의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양국 조각가의 창의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서울 전시가 끝난 뒤 '미소의 부처님-2구의 반가사유상'이라는 주제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쿄국립박물관에서도 개최된다. (02)2077-9540 신성민 기자



일본 주구사 목조반가사유상

우리 삶 담은 전통 민화 보는 즐거움 느껴보세요

불일미술관, 박현숙 개인전 개최

기복과 장수, 해학과 풍자로 표현되는 민화는 불교 사찰에서도 두루 사용된 친근한 한국화다. 전통 민화를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박현숙 화가의 개인전 '민화를 보는 즐거움, 樂'을 진행한다.

작가는 상징성과 해학성을 갖춘 민화에 불교적 요소를 가미했다. 또한 민화에서는 드물게 천연염료 도입을 시도해 '전통을 기반한 창작'이라는 도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박현숙 작가는 전시기간 동안 관람자와 민화의 소통을 위해 법원사 앞에서 민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박현숙 작가의 작품 '학'(65x70)'

REVIEW

음악회 범패 · 오케스트라의 성공적 크로스오버

니르바나 불속음악회

1부 합창 · 독창, 2부 본격 협연 장중미, 청아함이 돋보인 공연

'천년의 향기, 미래를 향하여'. 지난 4월 17일 서울 KBS홀, 니르바나 팔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불속음악회는 천진 불인 평화사 소년소녀합창단의 '연꽃 피는 날'로 문을 열었다.

1부와 2부로 나뉜 이번 공연은 우선 1부는 합창과 독창 등 성악곡, 2부는 오케스트라와 범패의 협연 등으로 구성됐다. 앞에 편성된 합창단 음성공양은 이번 공연서 흥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역할에 충실했다. 편성의 노림수도 여기에 있던 것 같다. 다섯 번째 순서부터는 독창이다. 바리톤 김재일씨의 '예불'이 눈에 갔다. 조석예불때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예불문이 무대 위서 울려 퍼지니 환희심이 솟구쳤다. 굵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전해진 '예불'은 객석서 잠시 내 자신을 내려 놓는 찰나를 선사했다. 이어 비구니 스님 성악가 두 분이 무대에 올랐다. 정행 스님과 정을 스님이



4월 17일 열린 니르바나 팔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불속음악회. 범패와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실험적 공연이 펼쳐졌다.

다. 정행 스님이 차분한 음색의 카리스마를 발산했다면, 정을 스님은 심장의 박동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렸다.

2부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희망찬 환희 서곡을 선사했다. 연수 부속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예술적 가치보다는 종교적 가치가 더 컸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그간의 노력에 등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무대 위가 즐거우면, 객석도 즐겁다. 공연이 끝나자, 일제히 공연장 문이 열렸다. 공연장에 가득 찼던 범패감과 환희심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여법한 음성공양을 통해 이번 부처님 맞이 하지만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타악

이 소리를 휘몰고, 범패의 장중함 속 청아함이 오케스트라를 시종 리드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흐름이 끊기는 옛 박자의 호흡이 중간에 몇 번 눈에 띄었다. 연수 부속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예술적 가치보다는 종교적 가치가 더 컸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그간의 노력에 등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무대 위가 즐거우면, 객석도 즐겁다. 공연이 끝나자, 일제히 공연장 문이 열렸다. 공연장에 가득 찼던 범패감과 환희심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여법한 음성공양을 통해 이번 부처님 맞이 체비는 잘 끝났다. 김주일 기자

연극 나를 이끌 코뚜레를 찾았는가

연극 '경허-Empty Mirror' 음악 · 연기 · 춤 인상적 조화 던져진 돌은 비움의 과정

깜깜한 무대. 어딘가에서 던져진 돌. 이내 무대 바닥과 부딪쳐 '탁' 소리를 낸다. 무언가를 경책하는 것 같다. 스스로를 바로잡으려는 추비소리 같은 연극 '경허-Empty Mirror'는 이렇게 시작한다.

연극 '경허'의 주최단체인 (사)경허연구소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 공연에 앞서 프레스 리허설을 진행했다. 90분 동안 진행된 연극은 경허의 일대기를 '세미 너비' 형식으로 이뤄졌다.

극의 내용은 경허 스님이 출가해 깨달음을 이르고, 무애를 펼치며 전법을 하다가 열반에 이르기 까지를 그린다.

현대 무용을 바탕으로 한 무언의 퍼포먼스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나레이션과 배우들의 연기도 중간 중간 삽입돼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우들의 강한 몸짓과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장엄한 융합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



4월 20일 진행된 연극 '경허'의 한 장면으로 경허 스님의 열반을 정엄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 충분한 요소다.

극중 경허 스님이 깨닫는 장면, 문둥이 여인과 에피소드, 열반에 이르는 장면은 특히 눈길에 간다. '돌은 낫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삼천세 계가 내 짐임을 알았다'고 외치면서 스

스로 얼굴을 닦는 장면은 선적인 품위가 느껴진다.

또한 문둥이 여인을 동거하며 치료하는 장면에서는 경허가 가진 자비심을 몸짓 연기로 풍부하게 표현했다. 문수동자가 경허를 이끌어 가는 열반의 장면도 매우 장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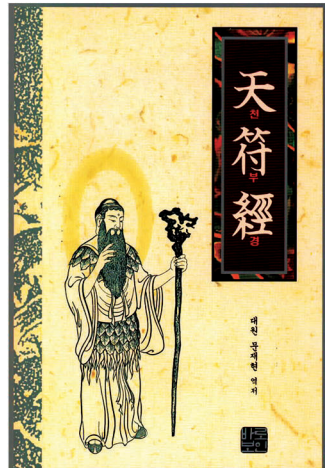
연출과 주연을 맡은 강만홍은 20년 전부터 연극 '경허'를 준비했고, 살면서 경허 스님 일대기를 수시로 읽고 탐구했다. 사실 이번 연극은 지난 2008년 뉴욕 맨하탄의 라마마 극장에서 격찬을 받았던 '길 없는 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다.

연극의 시작과 끝은 돌이 부딪치는 소리로 끝을 맺는다. 강만홍은 "돌은 오랜 시간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극에서도 돌은 많은 상징을 가진다"고 풀이한다.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극 내내 걸려 있던 코뚜레에서 '스스로를 바로 보라'는 선지식의 경계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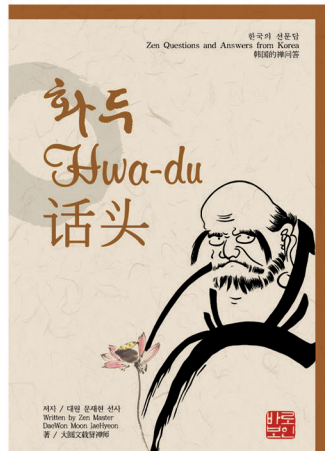
한편, 연극 '경허'는 오는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람예술극장에서 진행 된다. 신성민 기자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사, 삼부경!



화두

'화두'는 대원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일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 031-534-3373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매 점포/사찰단체를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 (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 (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첨가제 (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 (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 (특허등록) 당장하루, 팔자보 (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세집중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향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총무원장 무공당 해봉

- #### 입종 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 (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 (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몸에 받은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